

'로맨스 커플' 현-손, 드라마서도 로맨스 커플

〈현빈-손예진〉

영화 '협상' 서 만나 서로에게 신뢰감 두 번의 열애설은 모두 부인했지만 11월 방송할 tvN 드라마 주연 유력 박지은 작가 신작 애뜻한 호흡 기대



두 번이나 열애설에 휘말린 손예진(왼쪽)과 현빈이 11월 방송예정인 드라마에서 커플로 등장한다. 사진은 2018년 주연한 영화 '협상' 프로모션 당시 모습.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거리두기' 대신 '재회'를 택했다. 두 번이나 열애설에 휘말린 동갑내기 배우 현빈(37)과 손예진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드라마 동반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 tvN이 11월 방송하는 박지은 작가의 새 드라마가 그 무대다. 여전히 "친한 사이일뿐"이라며 선을 긋지만 연인일지 모른다는 눈길 속에 두 톱스타가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현빈과 손예진은 올해 1월 '해의 목격담'을 통해 처음 열애설에 휘말렸다. 미국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각기 개인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다는 두 사람은 얼마 뒤 현지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장 공개돼 두 번째 열애설에 휩싸였다. 때마다 이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드라마 동반 출연' 카드를 택하면서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3일 박지은 작가의 신작에 함께 출연한다는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 직후 이들의 소속사는 나란히 "현

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상태다.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협상'을 통해 처음 만났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연에게 활동을 해왔지만 한 번도 같은 작품에 출연하지 않은 이들은

영화 개봉 당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아낌없이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동갑이라 더 가깝게 지낸다"는 영화계 관계자들의 설명도 뒤따랐다.

'협상' 개봉 이후 제기된 두 번의 열애설을 거친 뒤 이들이 택한 새 드라마가 로맨스 장르라는 점도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직 구체적인 제목이나 스토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지은 작가는 그동안 '별에서 온 그대' 등 작품을 통해 실력을 증명한 로맨틱 코미디의 장기를 이번 드라마로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빈과 손예진은 '협상'에선 각각 테러범과 협상가 역을 맡아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애뜻한 호흡을 예고한다.

드라마 촬영은 늦어도 8월경 시작할 예정이다. 손예진은 이에 앞서 6월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 866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편이다. 손예진은 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촬영한 뒤 드라마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영화의 일부 주연배우 출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수'도 남아 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해시태그 컷



뭘 해도 잘 생김

역시 뭘 해도 '잘 생김'이라는 평가부터 나온다.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차은우가 한 식당에서 코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후드 티셔츠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있어도 잘 생김 외모를 좀처럼 숨길 수 없다. 짓가락으로 입술을 쪽 늘려 장난을 치는 모습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짓가락을 뽐내며 다 작은 얼굴 크기가 시선을 잡아끈다. 팬들은 "편안해보여 기쁘다" "뭘 입어도, 뭘 해도 잘생겼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포스트 #차은우 #뭘해도잘생김 #정년기철철

내일 무궁화 묘목 나눠드립니다

동아일보사 앞 광장 식목일 이벤트 김민중·이연희 특별게스트로 참여

좀처럼 한 자리에서 볼 수 없는 스타들이 한 무대에 나선다. 배우 김민중과 이연희가 무궁화 보급에 앞장선다. 두 사람은 식목일인 5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청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 앞 동아광장에서 무궁화

묘목 2만 그루를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물론 무료다. 평소 TV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두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들은 동아일보사가 일제의 35년 압제 속에서도 민족의 가슴에 피어났던 나라의 꽃 무궁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김민중 이연희 두 사람은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1시간가량 참여하지만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개인은 5그루, 단체는 10그루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묘목을 소지한 시민은 동아미디어센터 옆 일민미술관 신문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해 신문 제작 체험도 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청계광장 방면)를 이용하면 행사장소를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사는 창간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문의 02-2020-1780, 동아일보사 총무팀)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예능 늑동이 한고은의 재발견

동상이몽 이어 미쓰코리아까지 야무진 손맛·솔직한 성격 매력 예능 인기 타고 드라마 제의도



한고은

연기자 한고은(44)이 '늑동이 예능스타'로 거듭났다. 지난해 SBS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으로 대중의 호감을 얻은 후 이번엔 방송중인 tvN '미쓰 코리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를 잘 아는 측근들은 "솔직함"을 인기의 커다란 동인으로 꼽았다.

한고은이 패널리로 고정 출연 중인 '미쓰 코리아'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외국인들의 집을 연예인들이 직접 찾아가 한식을 요리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한고은은 박나래와 요리 경쟁을 펼치며 재미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5년차 주부의 야무진 손맛으로 게스트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만언니'로서 방송인 조세호, 황광희, 신아영 등 출연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경험으로 얻은 영어 실력은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든든함을 주는 요소다.

덕분에 '미쓰 코리아'는 그가 남편 신영수 씨와 함께 출연한 '동상이몽2'에 이은 또 다른 '예능 대표작'으로 자리 잡을 분위기다. 한고은은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출연했던 '동상이몽2'에서 남편과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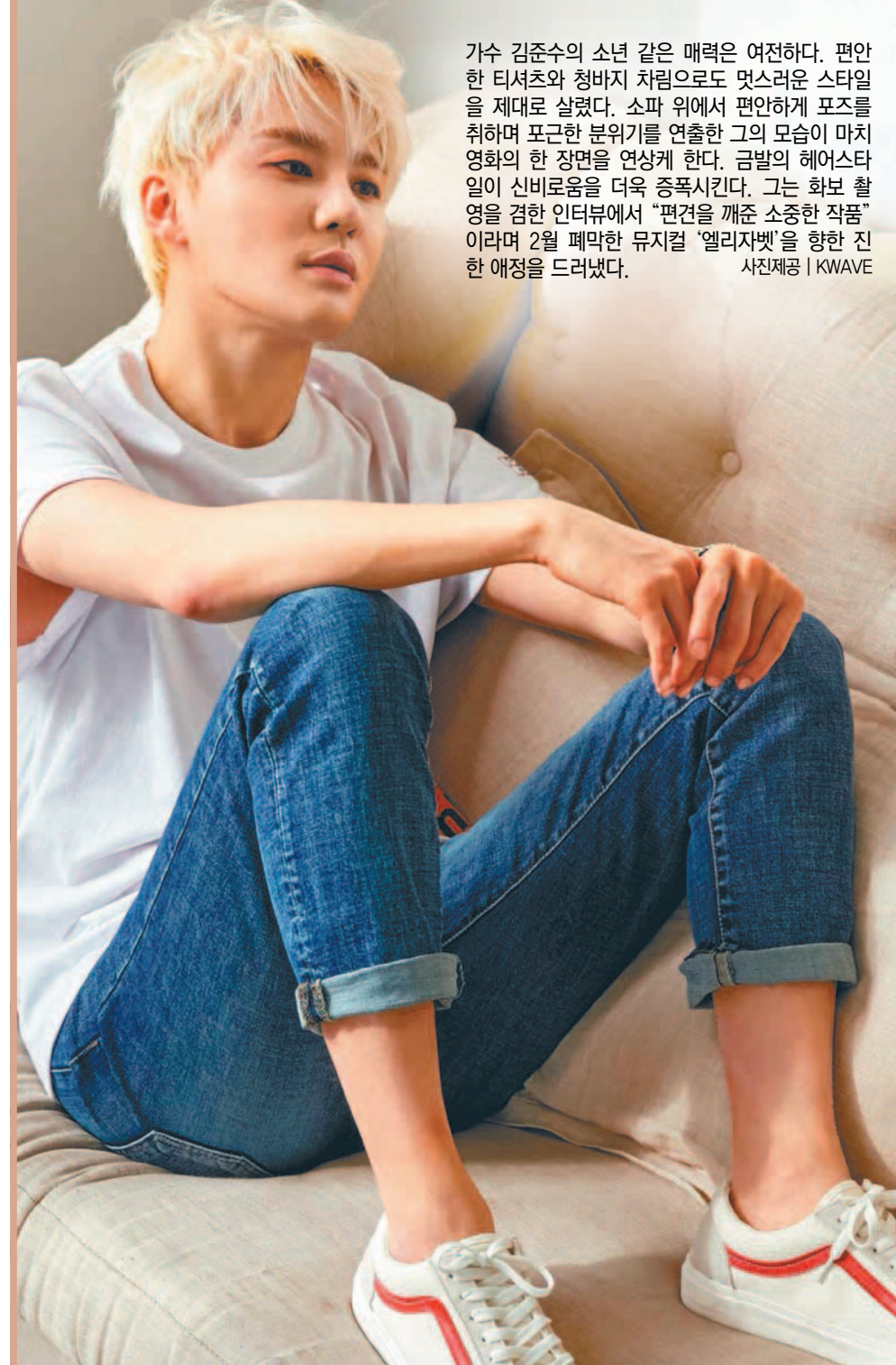
한고은의 측근들은 프로그램 속 솔직함이 평소 그의 모습 그대로라고 입을 모은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의 황원택 이사는 "TV 속과 실제의 한고은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특유의 솔직하고

시원한 성격으로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동상이몽2' 이후 많은 예능프로그램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쓰 코리아'에 함께 출연 중인 박나래도 한고은을 향해 "모든 게 완벽하고 흠집 없는, 이른바 '사기캐(사기 캐릭터)'다"고 표현했다. "예능인으로서 최고의 보석이 될 것"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연출자 손창우 PD는 "요리 실력과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며 한고은을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대중의 호감은 연기활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2015년 방영한 '미스 맘마미아' 이후 3년간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던 그는 작년 '동상이몽2' 직후 '키스 먼저 할까요?'와 '설렘주의보'에 연달아 출연했다. 소속사 황원택 이사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얻은 화제성 덕분에 꾸준히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고 있다. 캐릭터도 전보다 폭이 넓어진 느낌"이라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며, 연기로도 곧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현장.jpg

영화같은 김준수



가수 김준수의 소년 같은 매력은 여전하다.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도 멋스러운 스타일을 제대로 살렸다. 소파 위에서 편안하게 포즈를 취하며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그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금발의 헤어스타일이 신비로움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는 화보 촬영을 겸한 인터뷰에서 "편견을 깨준 소중한 작품"이라며 2월 개봉한 뮤지컬 '엘리자벳'을 향한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KWAVE

9월로 연기된 '배가본드'

이승기·수지 주연의 SBS 드라마 세계시장 염두 넷플릭스와 조율중

연기자 이승기와 수지 주연의 SBS 드라마 '배가본드'가 당초 5월에서 9월로 방송 일정을 잠정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한 전 세계 동시 공개를 겨냥한다는 전략이 작용했다.

'배가본드'는 제작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가 SBS와 손잡고 25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하는 드라마.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할리우드의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과 글로벌 배급 계약을 맺고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외 함께 전 세계 시청자에게 동시에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배가본드'의 방송 일정을 미룬 것도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배가본드'가 넷플릭스의 전파를 타게 된다면 지상파 미니시리즈로는 첫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된 방송 미니시리즈로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미스터 션샤인' '화유기' 등 케이블채널 tvN의 작품이 전부였다.

SBS는 이를 통해 비교적 더 많은 해외 판권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나라별로 해외 판권을 판매해왔던 수고로움을 덜어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3일 "배가본드" 측과 시청등급 등 심의와 관련한 사항 등 정식 판권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인도영·김형조 기자